

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김미선*

|| 차례 ||

- I. 서론
- II. 연구 방법 및 검사 도구
- III. 연구 결과 분석
- IV. 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 V. 결론

【 】

이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와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학생 126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SACQ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현진원(1992)이 번안하고, 김효원(2005), 이지선(2009)이 수정한 것을 50문항으로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점수에 따라 대학생활 저적응 집단과 대학생활 고적응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이 의사소통 인식에 대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대학생활 저적응 집단은 고적응 집단에 비하여 '새 학기 증후군'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활 고적응 집단이 저적응집단과 비교하여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학 교양의 의사소통 과목이 일방적 말하기에서 벗어나 상호교섭적인 말하기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의사소통, 의사소통 능력, 대학생활 적응 척도, 대인관계, 저적응 집단, 고적응 집단, 의사소통 역량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와 대학생활의 적응 여부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치열한 대학생활의 단면을 보여 주는 신조어에 ‘앗싸(자발적 아웃사이드)’, ‘혼밥’, ‘밥터디’ 등이 있다. ‘앗싸’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혼자 밥을 먹는 것’이 ‘혼밥’이다. ‘자발적 아웃사이드’로 혼자 생활은 하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혼자 먹지 않으려고 모르는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 밥을 같이 먹는 행위를 ‘밥터디’라고 한다. 인간관계보다는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요즘 대학생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언어들이다.¹⁾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만 직면했던 취업 문제가 모든 학생들의 고민

1) 공지영·강영훈(경인일보, 2014.4.8.), 「과잉경쟁 사회 공동체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초상」 참조.

거리로 대두되면서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대학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과목이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대학생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대학생활 적응 영역, 대인관계 영역, 의사소통 교육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 영역에서는 김준곤 외(1991), 김명소·임지영(2003), 이경아 외(2004), 이숙정·유지현(2008), 이인경·김장희(2011) 등의 논문 외에 여러 관련 연구가 있다.

김준곤 외(1991)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와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인생 목표가 뚜렷하고, 생활이 행복할수록 보다 긍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김명소·임지영(2003)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의 요소들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여 “남자 대학생의 경우 자기수용, 대인관계, 가족정체성, 가치관/신념, 경제력이 삶의 만족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여대생의 경우 자기수용과 경제력만 유의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숙정·유지현(2008)에서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충분히 크지 못

할 때에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 결국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인경·김장희(2011)에서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친밀감이 형성되고, 더 나아가 긍정적 대인관계 맺기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권보연(2000), 박영신·김의철(2008), 박지애(2015)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권보연(2000)에서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 있고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박영신·김의철(2008)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간관계와 그러한 관계에서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및 화법 교육에 관한 연구에는 전정미(2002), 권순희(2005), 전은주(2007), 박미영(2008), 전은진(2012), 한국은·원상봉(2013) 등 여러 편의 논문이 있다.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 교육의 내용과 학습 방안을 제시한 논문은 전정미(2002), 권순희(2005), 박미영(2008), 한국은·원상봉(2013) 등이다. 전은주(2007), 전은주(2014)와 전은진(2012)에서는 현재 여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화법 과목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분석하여 의사소통

인식 태도와 대학생활의 적응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의사소통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검사 도구

1.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6명을 설문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015년 9월 3일 ~ 9월 10일까지 의사소통 관련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배포하고 수합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

조사대상은 교양 필수 과목인 ‘글쓰기’를 수강하는 1학년 학생과 교양 핵심 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반 학생들이다.²⁾ ‘의사소통’ 수업이 설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의사소통’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학년 학생이 전체의 81%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6명(28.6%), 여학생이 90명(71.4%)이다.

의사소통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 사전 조사로 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 능력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예비 문항을 작성한 후 전문가에게 문항의 적절성과 표현의 적합성 등을 점검받았다. 셋째, 예비 문항을 10여 명의

2) 학생들의 학과 분포는 간호학과 77명(61.1%), 영문학과 25명(19.8%), 경영학과 11명(8.7%), 국문학과 5명(4.0%), 사회학과 3명(2.4%)이며, 건축학과, 정치학과, 컴퓨터공학과 각 1명(0.8%)이다.

대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수정한 설문지를 서울 소재 C대학교 대학생 135명에게 전달한 뒤, 불성실한 답을 제외한 126장을 수거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2. 검사도구

1)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인식 차이

대학생들이 의사소통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에 예비 조사의 성격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서술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언어와 의사소통> 과목을 수강 신청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첫 수업 시간에 적어낸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2명의 조언을 받아 문항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5점 Likert 식으로 응답 방식을 구성하였으나, 추가 답변을 위해 ‘기타’를 마련하였다.

2) 대학생활 적응 척도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기존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척도를 현진원(1992)이 번안하고, 김효원(2005)과 이지선(2009)에서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에의 적응으로 3 하위변인이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신뢰도 계수는 .845~.867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	문항	신뢰도 계수
학업적 적응	2, 5, 8, 9, 10, 13, 16, 18, 19, 20, 26, 27, 37, 49	.845
사회적 적응	1, 3, 6, 7, 14, 21, 25, 28, 31, 33, 34, 36, 38, 40, 46, 47, 48, 50	.867
대학환경에의 적응	4, 11, 12, 15, 17, 22, 23, 24, 29, 30, 32, 35, 39, 41, 42, 43, 44, 45,	.862

첫째, ‘학업적 적응’은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 즉, 수업, 과제, 실습, 시험 등에 얼마나 적응하는지를 측정한다(14문항).

둘째, ‘사회적 적응’은 대학생들이 학교 내외의 활동 즉, 스터디 모임, 동아리 활동, 연합회 등에 얼마나 적응하는지를 측정한다(18문항).

셋째, ‘대학 환경 적응’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자신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다(18문항).

이지선(2009)에서는 64문항으로 설문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직접 관련이 없는 14문항을 생략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³⁾

Ⅲ. 연구 결과 분석

1. 의사소통 의식 조사 결과

대학생의 의사소통 인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소재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항 위주로 구성하기 위하여 이지선(2009)의 척도 중에서 ‘개인-정서적 적응’ 문항을 제외하였다.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학자들마다 ‘의사소통’의 정의를 달리 하듯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았다. 대학생들은 의사소통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 ‘의사소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항목	①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	②상대방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③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전달하여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④ 사람과 사람이 생각이나 정보, 감정 등을 교환하는 활동	⑤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
비율(%)	9.5%	2.4%	9.5%	35.7%	42.9%

차배근(1984:18-26)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구조적 관점, 기능적 관점, 의도적 관점”의 세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구조적 관점은 의사소통을 “정보나 메시지의 단순한 송수신 과정”으로 본 것이고, 기능적 관점은 의사소통을 “기호화와 해독 과정”으로 바라본 정의이다. 의도적 관점은 의사소통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대학생들의 응답에서도 나타나지만, 대학생들의 42.9%가 의사소통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답을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박경희(2009:81)에서는 대인관계 문제를 “행동, 인지, 정서적 원인” 등으로 나누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공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사소통을 정서적인 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2) 의사소통의 어려움

2. '의사소통'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상황은 언제입니까?						
문항	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② 낯선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말할 때	③ 상대방이 나와 정반대의 입장일 때	④ 상대방이 들으려는 의지가 없을 때	⑤ 주변 환경이 시끄럽거나 산만할 때	
비율(%)	7.1%	13.5%	3.2%	73.0%	3.2%	
3. '의사소통'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상대는 누구입니까?						
문항	① 이성 친구	②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	③ 부모님	④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	⑤ 경청하지 않고 주의가 산만한 사람	⑥ 기타
비율(%)	1.6%	7.9%	4.0%	34.9%	46.8%	4.8%

일상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나 상대가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대학생들의 73%가 '상대방이 들으려는 의지가 없을 때' 의사소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상대에 대한 답과도 연결이 되는데, 대학생의 46.8%가 '경청하지 않고 주의가 산만한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반면에, 권순희(2005:15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교수와 같은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가장 높았고, "일반 대중 앞에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3)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법

4. 의사소통 상황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문항	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② 나중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③ 무의미한 대답만 한다.	④ 처음부터 다시 설명한다.	⑤ 화제를 전환한다.
비율(%)	6.3%	21.4%	16.7%	25.4%	30.2%

5. 의사소통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문항	① 자리를 피해 버린다.	② 상대방을 욕한다.	③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푼다.	④ 잠을 푹 잔다.	⑤ 운동으로 해결한다.
비율(%)	22.2%	2.4%	48.4%	19.8%	6.3%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 상황이 마음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대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은 ‘화제를 전환한다.’가 30.2%였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한다.’가 25.4%였다.

의사소통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푼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은 것을 보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또 다른 인간관계로 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대학 내 의사소통

6. 대학 내 ‘자발적 아웃사이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항	①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한다.	② 관계의 일시적 단절이라 괜찮다.	③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④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⑤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율(%)	64.3%	4.0%	7.1%	16.7%	7.9%

7. 자신이 ‘새 학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항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있다.	③ 많이 있다.		
비율(%)	24.6%	64.3%	11.1%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던 대학 내의 ‘자발적 아웃사이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자발적 아웃사이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친구와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대학생들은 ‘자발적

아웃사이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데에 많이 동의하였다.

‘새 학기 증후군’은 대학생들만 겪는 일은 아니지만, 대학은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자주 새로운 학생들과 만날 수밖에 없다. ‘새 학기 증후군’이 ‘약간 있다.’는 학생이 64.3%이고, ‘많이 있다.’가 11.1%이니까 대체적으로 ‘새 학기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대학의 팀플(협동 학습)

8. ‘한 학기 수업에서 ‘팀플’이 있는 과목은 몇 개입니까?					
문항	① 전혀 없다.	② 1~2과목	③ 3~4과목	④ 5~6과목	⑤ 7과목 이상
비율(%)	1.6%	43.7%	46.0%	8.7%	0%
9. ‘팀플’ 여부가 수강신청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문항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있다.	③ 많이 있다.		
비율(%)	27.8%	39.7%	32.5%		
10. ‘팀플’이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있다.	③ 많이 있다.		
비율(%)	4.0%	49.2%	46.8%		
10-1. ‘팀플’이 부담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①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해서	② 팀원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③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팀원들이 있어서	④ 성적 평가가 공정하지 않아서	⑤ 일을 분담하기가 어려워서
비율(%)	12.7%	20.6%	34.1%	6.3%	22.2%

‘팀플(공동과제)’이 대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팀플’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스트레스가 생기게 마련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⁴⁾, ‘대학생 60%가 한 학기 수업에서 3개 이상의 팀플

4)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뉴시스, 2012. 8.10.).

을 한다'고 하였고, '대학생의 80%가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고 한다. '팀플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팀원 간 업무배분이 43%, 모임시간 정하기가 28%, 조원 간 불화가 22%'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취업 포털에서 실시한 조사⁵⁾에서도 대학생들의 팀플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난다. 대학생의 60%가 '카톡 읽고 답장 안하기 등 바쁜 척하며 잠수 타는 사람'을 가장 꼴불견이라고 보았다. 팀플을 통해서 얻는 것은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각의 차이 경험' 33.8%, '협동심과 배려 등 공동체 의식' 25.7%이라고 답하였으며, '얻은 것이 없다'는 답도 14.9%를 차지하였다.

6)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

G. Burton & Dimbleby 저, 이주행 외(2008:373)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 기능은 물론)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11. '의사소통 능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분항	① 경청	② 공감 능력	③ 상황 대처 능력	④ 전달력	⑤ 논리력
비율(%)	32.5%	42.1%	3.2%	19.0%	3.2%

대학생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공감 능력(42.1%)'과 '경청(32.5%)'을 선택하였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한 조사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대구시 교육연구정보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교육

5)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서 2014년 2월에 대학생 7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아시아경제, 2014.6.2.).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갖추어야 할 주요 능력으로 “공감 능력(61.6%), 도덕성(45.9%), 의사소통 능력(32.1%), 문제해결 능력(31.8%) 등을 제시하였다(한겨레신문, 2016.5.22.)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술보다는 감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학생들도 공감이나 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의 감정을 읽어 공유하고,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7)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

12.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있다.	③ 많이 있다.			
비율(%)	0.8%	19.0%	80.2%			
12-1. 대학생활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경우는 언제입니까?						
항목	① 발표 수업 할 때	② 조별 토의 수업할 때	③ 친구들과 대화할 때	④ 교수와 상담할 때	⑤ 처음 보는 사람과 말할 때	⑥ 기타
비율(%)	16.7%	29.4%	22.2%	1.6%	28.6%	1.6%

대학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대학생의 80.2%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고 답했다.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상황을 질문하였을 때 “조별 토의 수업할 때”로 답한 학생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처음 보는 사람과 말할 때”가 29.4%였다. 이는 박미영(2008)의 대학 학습자 요구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박미영(2008:48-49)에서는 “추가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화법 내용 구성”에 “면접 및 면담”이 40%, “토론 및 토의”가 34%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발표 수업 16.7%를 제외하면 모두 대인의사소통에서 학

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의 팀플에 관한 설문 결과와 연관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팀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생활을 원만하게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인의 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8) 의사소통 능력 자기 평가

13.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항목	① 아주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려움을 느낀다.	⑤ 매우 어렵다.	
비율(%)	1.6%	27.8%	51.6%	16.7%	2.4%	
14.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항목	① 말하기 연습	② 의사소통 관련 과목 수강	③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	④ 가까운 사람들과 먼저 소통하기	⑤ 잘 듣기	⑥ 기타
비율(%)	23.0%	5.6%	21.4%	28.6%	19.0%	2.4%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을 스스로 평가해 보라고 했을 때 29.4%가 “아주 잘하거나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에 19.1%가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반적으로는 의사소통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적은 수는 아닌 만큼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의사소통 개선 방법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먼저 소통하기”를 선택한 비율이 28.6%이고, “말하기 연습”이라고 답한 비율이 23.0%였다. 이는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권순희(20056:157)의 조사에서도 “대화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으로 “청자에 대한 관심”이 31.9%, “계속적인 만남”과 “상황 파악”이 각각 27%였다.

9) 말하기 능력

15.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항목	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듣는 이에게 전달하는 것	②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③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말을 하는 것	④ 상대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⑤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비율(%)	31.7%	8.7%	30.2%	22.2%	7.1%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기와 듣기로 나누어 설문을 하였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물음에 31.7%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듣는 이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 두 답변이 화자 중심의 관점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말하는 것”(30.2%)와 “상대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조절하는 것”(22.2%)이라는 답은 청자 중심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10) 듣기 능력

16.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항목	① 상대의 의견에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②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을 잘한다는 것	③ 남이 말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반응해주는 것	④ 말하는 이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듣는 것	⑤ 남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비율(%)	49.2%	21.4%	4.0%	22.2%	3.2%

17. 들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항목	① 너무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	② 말이 빠르거나 발음이 부정확할 때	③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때	④ 감정에 치우쳐 남을 깎아내릴 때	⑤ 의견 차이가 있어 내 주장을 상대에게 더 하고 싶을 때
비율(%)	14.3%	12.7%	15.1%	38.9%	19.0%

듣기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학생들은 공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49.2%가 “상대의 의견에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반면

에 듣기가 어려운 상황을 질문하였을 때 “감정에 치우쳐 남을 깎아내릴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38.9%였다. “의견 차이가 있어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더 하고 싶을 때”(19.0%)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다.

11) 의사소통 수업

18. 의사소통 수업을 통해 앞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항목	① 듣기 능력	② 설득 능력	③ 유머 감각	④ 논리력	⑤ 발표 능력	⑥ 기타
비율(%)	5.6%	23.0%	11.9%	35.7%	21.4%	2.4%
19. 말하기 관련 수업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항목	① 토의와 토론	② 대인의사소통(대화)	③ 프레젠테이션	④ 인터뷰(면담과 면접)	⑤ 협상	⑥ 기타
비율(%)	13.5%	47.6%	15.1%	11.1%	11.9%	0.8%

대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에서 개선하고 싶어 하는 것은 “논리력”(35.7%)과 “설득력”(23.0%)이다. “발표 능력”이라고 답한 비율도 21.4%를 차지하였지만, 대학생들이 의사소통 과목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조리 있게’ 말하기였다.

박미영(2008:40)의 설문 조사에서는 ‘대학생이 화법 강의를 수강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발표를 잘하고 싶어서’였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화법 내용’으로는 응답자의 54%가 ‘발표’라고 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47.6%가 대화와 같은 대인의사소통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한다고 답하였다. 반면에 ‘토의와 토론’, ‘프레젠테이션’은 각각 13.5%와 11.1%의 응답률에 그쳤다.

2.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인식 차이 및 대학생활 적응도

본 연구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의 응답을

과약하기 위하여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에 대하여 전체와 관심 연구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1)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의사소통 인식의 차이

<표 2>

문항	전공계열	N	평균	표준편차	t	p
7번 자신이 '새 학기 중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문사회	47	1.77	.56	-1.48	.14
	자연이공	79	1.92	.59		
9번 '팀플' 여부가 수강신청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인문사회	47	2.28	.71	2.61	.01
	자연이공	79	1.91	.79		
10번 '팀플'이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인문사회	47	2.23	.60	-3.04	.003
	자연이공	79	2.54	.53		
12번 대학생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인문사회	47	2.91	.58	1.37	.17
	자연이공	79	2.78	.47		
13번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인문사회	47	3.06	.84	-.35	.73
	자연이공	79	3.11	.73		

대학생의 전공에 따라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이공 계열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의 의사소통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강신청을 할 때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들이 자연이공계열의 대학생보다 “팀플”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이공계열의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팀플’에 더 강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보연(2000)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자연계열 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타인과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어려워하고, 사교적이지 못하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이용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 전공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필요성'에 따른 인식 차이

〈표 3〉

N(%)

전공계열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 상황					계	² (p)	
	발표수업	조별토의 수업	친구와 대화	교수와 상담	초면 대화			기타
인문사회	5(10.6)	17(36.2)	6(12.8)	0	17(36.2)	2(4.3)	47(100)	11.90
자연이공	16(20.3)	20(25.3)	22(27.8)	2(2.5)	19(24.1)	0	79(100)	(.036)

전공계열(인문사회/자연이공)에 따라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1.90, p<.05$).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초면인 사람과의 대화 상황, 조별토의 수업에서 가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자연이공계열의 학생들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가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발표 수업에서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 분석에서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팀플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비율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연결된다.

3) 전공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개선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

〈표 4〉

N(%)

전공계열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방법					계	² (p)	
	말하기 연습	관련 수업 수강	상대 존중 마음	지인과 소통	잘 듣기			기타
인문사회	13(27.7)	5(10.6)	13(27.7)	10(21.3)	4(8.5)	2(4.3)	47(100)	12.42
자연이공	16(20.3)	2(2.5)	14(17.7)	26(32.9)	20(25.3)	1(1.3)	79(100)	(.029)

전공계열(인문사회/자연이공)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방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42, p<.05$). 인

문사회계열의 경우 ‘말하기 연습’,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소통 능력을 개선하는 데 가장 좋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자연이공계열의 학생들은 가까운 지인과 먼저 소통하기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말하기와 듣기에 대하여 인문사회계열과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의사소통 능력 개선을 위하여 인문사회계열은 ‘말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자연이공계열은 ‘듣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4) 대학생활 적응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인식의 차이

대학생활 적응 전체 점수를 계산하고, 그 평균점수에 따라 대학생활 저적응집단과 대학생활 고적응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이 의사소통 인식에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대학생활 저적응 집단은 고적응 집단에 비하여 ‘새 학기 증후군’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활 고적응 집단이 저적응집단과 비교하여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문항	적응수준	N	평균	표준편차	t	p
7번 자신이 ‘새 학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적응	72	1.96	.568	2.085	.039
	고적응	54	1.74	.589		
9번 ‘팀플’ 여부가 수강신청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저적응	72	2.11	.779	1.058	.292
	고적응	54	1.96	.776		
10번 ‘팀플’이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적응	72	2.49	.556	1.308	.193
	고적응	54	2.35	.588		
12번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적응	72	2.74	.556	-2.574	.011
	고적응	54	2.96	.433		
13번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저적응	72	2.93	.718	-2.835	.005
	고적응	54	3.31	.797		

5)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

(1) 의사소통 수준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남녀 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도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문항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12번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남	36	2.92	.692	1.144	.255
	여	90	2.80	.429		
13번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남	36	3.17	.845	.654	.514
	여	90	3.07	.747		

12번 문항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물음이다. 전체 3점 만점에 남학생은 평균 2.92점, 여학생은 평균 2.80점으로 남녀 모두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대학생활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남녀 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1.144, p>.05$).

13번 문항은 자신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5점 만점으로 남학생은 평균 3.17점, 여학생은 평균 3.07점으로 남녀 모두 자신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을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녀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 자신이 판단하는 의사소통능력 수준의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654, p>.05$).

6) 대학생활 적응

(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서도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활 적응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대학생활적응	남	36	273.47	47.37	1.479	.142
	여	90	260.11	45.19		

남학생의 평균은 273.47점, 여학생의 평균은 260.11점으로, t-검증을 통하여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t=1.479$, $p>.05$ 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남학생보다 더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활 적응의 면에서 여학생에게 관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학생의 전공계열(인문사회, 자연이공)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8>은 대학생의 전공계열(인문사회, 자연이공)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표 8>

	전공계열	N	평균	표준편차	t	p
대학생활적응	인문사회	47	270.60	50.89	1.26	.21
	자연이공	79	259.96	42.73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은 270.60점,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은 259.96점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이공계열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1.26$, $p>.05$ 으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대학생활 적응 평균점수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보다 낮은 결과를 보았을 때, 대학에서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V. 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지금까지 의사소통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았다. 대학생들이 대인 관계를 원만히 형성하고 구성원과 소통이 잘 될수록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수행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떨치고 스스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대학 교양 국어 과목이 운영되어야 한다.

1.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교과목 개발

전은주(2014:23)에서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법 관련 수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말하기와 토론(연세대), 스피치와 토론(성균관대), 의사소통능력과 리더십(고려대), 화술의 이해(전남대)” 등과 같이 주로 발표 위주의 화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해 본 결과, “말하기 관련 수업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은 ‘대인의사소통(대화)’가 4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정미(2002:91)에서 “학생들이 말하기 강좌를 수강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339명(67.8%)이 “인간 관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유”를 선택했다는 사실과 부합되며, 전은진(2012:180)에서 “말하기 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대화’”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의사소통의 교육 내용은 대학생들의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화법 과목에서처럼 다양한 말하기 유형을 접해보는 식의 구성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자경(2006)에 따르면, “공감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인간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인식 조사에서 “공감”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항목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그 이유는 대학생들이 의사소통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논리력과 설득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우리말에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말을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논리력과 설득력이다. 대학생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의사소통 수업을 통해 앞으로 향상되었으면 하는 능력”이 무엇인냐는 물음에 36.7%가 “논리력”을, 23.0%가 “설득 능력”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목을 운영할 때에는 학생들의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열별 의사소통 교육 내용 차별화의 필요성

글쓰기 교육의 경우 계열별로 교재를 달리 구성하거나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는 대학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글쓰기 과목에 비해 말하기 과목은 대학에서 교양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열별로 교육 내용을 달리하는 대학도 거의 없다. 글쓰기는 학생들 사이의 실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글쓰기를 평가하는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열별 구분이나 실력별 분반이 가능하다. 하지만 말하기는 학생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분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남녀의 차이는 없지만 계열별 차이는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 대하여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은 “초면인 사람과의 대화 상황(32.6%)”과 “조별 토의 수업(32.6%)”이라고 답하였고, 자연이공계열의 학생들은 “친구와의 대화(27.8%)”라고 답하였다. 또한 발표 수업과 팀플 수업에서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는 방법”에서도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는 “말하기 연습(27.7%)”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27.7%)”이라 하였고,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은 “가까운 지인과의 소통(32.93%)”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처럼 계열별로 의사소통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른 만큼 의사소통 교육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자연이공계열의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보다 발표 수업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만큼, 처음부터 공적인 말하기를 다루는 것보다 조별 토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실습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낫다. 또한, 평가를

위한 실습이 아니라 참여를 위한 실습을 통해 말하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해 주어야 한다.

V.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의사소통 인식 태도와 대학생활의 적응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의사소통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학에서 대인의사소통(대화) 관련 교양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발표와 토론” 과목 위주로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인관계 개선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 대인의사소통 과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공감 능력과 논리력, 설득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글쓰기 교육에서처럼 말하기 교육에서도 계열별로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이 달라진다면 효율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설문 문항이 좀 더 치밀하게 구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보연,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권순희,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현 교육』, 역락, 2005.
- 김명소·임지영,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분석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8-1, 2003, pp.83-97.
- 김준곤·성한기·이춘희·박경자, 「대학생활 만족의 구성요인과 예언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4-1, 한국심리학회, 1991, pp.154-167.
- 김효원,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경희, 「대학생용 대인관계 조화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박미영, 「학습자 중심의 대학 화법 교수·학습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영신·김의철,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학회연구』 22-4, 한국교육심리학회, 2008, pp.801-836.
- 박영신·김의철·김보성, 「IMF시대 이후 초,중,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8-2,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02, pp.105-135.
- 박지애,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현미, 「대학생과 직장인의 성취와 삶의 질에 대한 종단분석」,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경아·양현정·한종철,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2004, pp.409-410.
- 이숙정·유지현,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한국교육심리학회, 2008, pp.580-607.
- 이인경·김장희,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12-2, 한국상담학회, 2011, pp.673-691.
- 이지선,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2009.
- 임미향, 『청년의 삶의 질과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 :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및 성격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임미향·박영신·김의철, 『대학생의 사회적 지원, 성격,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14-5, 한국청소년학회, 2007, pp.255-283.
- 전은주,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1999.
- _____, 『대학 화법 교육의 내용 구성』, 『국어교육학연구』30, PP.403-429, 2007.
- _____, 『대학 교양 화법 교육의 발전 방안』, 『화법연구』24, 한국화법학회, pp.9-39, 2014.
- 전은진, 『대학생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인문과학연구』 32,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PP.167-191, 2012.
- 전정미, 『대학생을 위한 말하기 교육 - 학습자 욕구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 내용 구성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PP.85-112, 2002.
- 조경덕·장성화,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동문사, 2013.
- 조성진, 『코칭 교과목을 통한 의사소통교육의 효과 분석』, 2016년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춘계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16, pp.449-468.
- 차배근, 『커뮤니케이션學概論』, 세영사, 1984, pp.18-26.
- 한국은·원상봉, 『국내 이공계 대학생의 의사소통 교육 인식조사』, 『실천공학교육논문지』5권 2호,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pp.151-161, 2013.
- 현진원,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Baker, R. W. & Siryk, B.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984, pp. 179-189.
- G.Burton & R. Dimpleby, Between Ourselves, EDWARD ARNOLD, 1995.(이주행의 옮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2008, p.373.)
- Littlejohn, S.,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2.
- Reardon, K.K.(198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Where minds mee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7.(임철성 옮김, 『대인의사소통』, 한국

문화사, 1997.)

공지영·강영훈(경인일보, 2014.4.8.), 「과잉경쟁 사회 공동체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초상」

구분관(한겨레신문, 2016.5.22.), 「“학교교육 90% 쓸모없어진다” 교육계 알파고 충격 속 ‘심화학습중」

배민욱(뉴시스 2012.8.10.), 「대학생 10명중 9명 “팀플하면서 무임승차자 경험했다”」

지연진(아시아경제 2014.6.2.), 「대학생 과제팀플 꿀볼건 1위는 “연락두절」

Abstract

Communication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iate Interpersonal Skills

Kim, Mi-se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iate communication skills and the level of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nd to conduct a rudimentary research to aid the development of collegiate communications capability.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propose a method to improve collegiate communication skills based on the findings.

With the mean of the SACQ as the criterion,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of high adjustment scores, and the other of low adjustment scores. Subsequently, how the higher group differed in their perception of communication from their lower counterparts was analyzed. The lower group showed more signs of 'new semester blues' compared to the higher group. Also the higher group found communication skills to be more essential in collegiate life, and thought of their own communication skills as better than the lower group.

This study affirmed the need for communication skills courses that can help students adjust better to collegiate life and improve their interpersonal skills. Communication courses of the liberal arts faculty must be improved in a way that can help develop the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Key Word :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kills,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roup of higher adjustment scores, group of lower adjustment scores, communications capability.

〈부록 1〉

〈대학생활 적응 척도〉

단과대학 _____ 학년 _____ 성별 _____ 나이 _____

※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최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상태를 얼마나 잘 나타 내는지를 파악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해주시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

	1	2	3	4	5	6	7	8	9
1. 나는 대학 내의 환경에 잘 맞는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2. 나는 지금까지 학업을 잘 해 나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3. 나는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4. 나는 내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다.	1	2	3	4	5	6	7	8	9
5. 나는 대학 공부에 어렵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8	9
6. 나는 대학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 동아리)에 잘 참여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7.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8. 나는 시험기간 중에 잘 지내지 못한다.	1	2	3	4	5	6	7	8	9
9. 나는 지금의 학업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나는 교수님과 비공식적,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1. 나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2. 나는 특히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3. 나는 학과 공부에서 해야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1	2	3	4	5	6	7	8	9
14. 나는 대학에서 몇몇 가까운 대인관계적 유대를 맺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5. 나는 학업적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1	2	3	4	5	6	7	8	9
16. 사실 나는 해야 되는 공부를 충분히 해 낼 만큼 똑똑하지는 못하다.	1	2	3	4	5	6	7	8	9
17. 학사 학위를 따는 것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8	9
18. 나는 최근에 공부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9. 나는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6	7	8	9
20. 최근에 사실 나는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21. 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과외 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22. 나는 근래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23. 나는 다른 대학으로 갔으면 한다.	1	2	3	4	5	6	7	8	9
24.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수와 종류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25. 나는 대학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26. 최근 나는 공부를 하려 할 때 주의집중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2	3	4	5	6	7	8	9

27. 나는 노력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28. 나는 대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	1	2	3	4	5	6	7	8	9
29. 나는 대학에서 듣고 있는 강의의 질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30. 나는 강의에 어김없이 출석한다.	1	2	3	4	5	6	7	8	9
31. 나는 대학 내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32. 나는 학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이다.	1	2	3	4	5	6	7	8	9
33. 나는 최근에 이성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34. 나는 대학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다.	1	2	3	4	5	6	7	8	9
35.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6	7	8	9
36. 나는 최근에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1	2	3	4	5	6	7	8	9
37. 나는 과제물을 시작하는 데 힘이 든다.	1	2	3	4	5	6	7	8	9
38. 나는 대학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39. 나는 이번 학기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40. 못마땅하게도 나는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41. 이모저모로 볼 때, 대학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1	2	3	4	5	6	7	8	9
42.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의 대부분은 학과 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1	2	3	4	5	6	7	8	9
43. 최근에 나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44. 최근에 나는 대학을 아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45. 나는 내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교수님들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46. 나는 어떤 문제이든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몇 있다.	1	2	3	4	5	6	7	8	9
47. 나는 대학생활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2	3	4	5	6	7	8	9
48.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꽤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49. 나는 대학에서의 내 학업상태에 대해 꽤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50. 나는 앞으로 대학생활에서 닥칠 도전에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7	8	9

김미선

소속 :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전자우편 : makim95@cau.ac.kr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

